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Equalist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7년 5월 30일(화요일) / 장 소 : 의사소통센터							
참석자 명단	학번	20080000	이름	김00	학번	20160000	이름	김00
	학번	20150000	이름	유00	학번		이름	
	학번	20150000	이름	김00	학번		이름	
	학번	20160000	이름	박00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p> <p>『페미니즘의 도전들』이란 책은 페미니즘의 교과서이자 스테디셀러다. 이 책의 저자인 여성학자 정희진은 가정폭력, 성과 섹.스의 문제, 성판매 여성 문제, 군사주의 문화, 동성애 등의 사회적 이슈를 여성의 시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다. 그러나 이 책은 결코 여성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다.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성판매 여성같이 차별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이 사회에서 공존하고 상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메시지이다.</p> <p>이 책을 포함한 남은 다섯 권은 모두 각자가 선택해온 책이며, 따라서 선정해온 사람이 이야기 주제를 정해오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책은 심리학과 유00이 선정했으며, 이야기 주제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이야기주제※</p> <p>1.저자는 머릿말에서 인식론으로써의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며 여성주의가 성별을 초월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생각과 이러한 관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보자.</p> <p>2. 이 책은 넓은 스펙트럼의 여성 이슈를 다루고 있다. 각자 인상적이었던 부분과 그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보자.</p> <p>3. 지금까지의 북클럽 소감</p> <p style="text-align: center;">-----</p> <p>1.저자는 머릿말에서 인식론으로써의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며 여성주의가 성별을 초월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생각과 이러한 관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보자.</p> <p>유00</p> <p>전에도 이와 비슷한 논의를 몇 번 했던 것 같다. 여성주의가 성별을 초월하는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말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인식체계를 제시한다는 이야기이고, 쉽게 말하면 현상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얘기다. 우리 눈에 너무나 익숙해서 있는지도 모르던 색안경을 벗겨준다니, 듣기만 해도 여성주의에 대한 궁금증이 솟아오르는 말</p>							

이다. 이 말을 듣고 떠올랐던 단어가 있다. '프로 불편러'다. 이 단어는 보통 주류적인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비꼴 때 쓰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불편러란 단어는 다분히 폭력적이지 않은가 싶다. 누군가 어떤 말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 말을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음, 아무튼 머리말을 보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질문을 만들었다.

김00

여성주의가 성별을 초월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말이 너무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 싶었다. 여성주의는 단지 사회가 만들어낸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고 생각했다. 이 책을 읽은 지금, 나는 여성주의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은 성별에 한해서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종, 학력, 계급 등등의 다양한 요인들도 같이 살펴봐야한다. 여성주의는 성별에 초점을 더 두고 있지만 다른 사회적 차별 요인들도 같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남녀차별 사건을 접했을 때, 성별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의 정체성으로 설명되는 다양한 요인들도 고려해야한다. 세상을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김00

여성시대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고, 그런 제목의 노래도 있다. 난 이제목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성 시대란 말에서 그럼 남성은? 이라는 생각이 조건 반사적으로 들기 때문이다. 성별을 바꿔서 남성시대라는 카페나 노래가 있다면 어떤 반응일지도 궁금하다. 여성주의도 비슷한 관점이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논하기에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논하는 거 자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여성주의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느낌은 남성은 배재받는 느낌이다.(또한 책을 읽을 때 군사학적 관점을 보면서도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 것이 바로 여성이 지금까지 받은 역사적 차별과 그 문화의 잔재를 역으로 볼 수 있는 기분이 될 수도 있다.

남성주의, 여성주의가 아닌 인간과 인간을 위한 사상이 되면 좋겠다. 그 때는 이 질문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단어 갖고 말꼬리 잡는게 아니다.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김00

질문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무엇이 있을지 논의하기 보단 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남/녀는 동일한 면도 많지만, 애초부터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성별을 초월한 관점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성별을 초월한 대안적인 관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한 쪽으로 치우쳐진 관념이 대안을 제시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00

페미니즘은 또 하나의 인식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는 성별이 슈퍼코드로써 자리 잡았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강요된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그를 판단하는 듯하다. 남성이 하이힐을 신고 치마를 입었을 때와 여성이 어려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이슈가 되는 것을 예로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선 언뜻 봐선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성별에 따른 역할'로써 개인을 옹죄고 있다. 우리는 모두 성별이 아닌, '나 그 자체'로 존중받길 원한다. 나는 인식론으로써의 페미니즘이 해결의 열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페미니즘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문이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쓰겠다. 타인에게 싫은 점이 보일 때,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다. 그렇기에 '싫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그것이 왜 싫은 지를 성찰해보면 될 듯하다. 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을까.

2. 이 책은 넓은 스펙트럼의 여성 이슈를 다루고 있다. 각자 인상적이었던 부분과 그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보자.

유00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 기저에 존재한다. 피해자다운 모습이란 자신에게 닥친 일에 완전히 무력한 모습이다. 피해자는 그 어떤 주체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피해를 입었다는 말보다 피해를 당했다는 말이 더 잘 어울려야 한다. 피해자에게까지 수동적인 성역할을 대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성 피해자에게 다수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나는 이런 말이 단지 여성에게만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피해자에게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00

인상적이었던 부분: 여성은 어머니이거나 애인이자 남성의 동료가 될 수 없다. 남성 문화에서 여성은 본래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을 사적인 존재로 볼 때 생긴다. 커피심부름을 시키거나 애교를 요청하거나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 된다. 드라마 '미생'에서 여자 직원이 더 높은 지위의 남성 직원으로부터 하대 받는 장면이 있었다. 그 때 직장 내에서 남녀차별을 처음 알게 되었다. 여성에게만 커피심부름을 시키는 이유가 궁금했다. 저자는 그런 현상을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잘 설명해준다.

경험담: 나는 여성이 화장해야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를 느낀다. 사실 내 만족보다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화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 남성은 여성만큼 자기만족을 위해 외모관리에 몰두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여성의 '외모관리'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여성은 '보는 주체'가 아니라 '보여지는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김00

"군사주의와 여성성"부분에서 한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기는 것은, 결국 한나라의 남성이 타국의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그 부분에서는 군사주의라는 이름이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어떻게 다가오는 지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말은 이 책에서만 본게 아니고, 페미니즘을 다루는 책이나 자료에서는 전부 본 내용이다. 그리고 난 페미니즘과 별개로 '군대'라는 것에 엄청나게 부정적이다. '생계형 빙산비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변명으로 하는 장관들이 있는 나라이며, 아무도 2년동안 희생해야하는 젊은 사람들을 알아주지는 않는다. 갔다운 사람들은 물론이고, 페미니즘을 외치는 여성들은 그 것이 권력의 획득 과정이라고 하며, '권리'라고 주장한다. 의무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나라 징병제로 가는 남성들은, 혹은 장관이나 부사관도 낮은 계급들은 전부 냉전시대, 혹은 군사정권에 의한 과도한 징병제

로 인한 피해자에 지나지 않고, 전부 희생자에 지나지 않는다. 난 페미니즘을 외치는 건 좋은데, 제발 이런 사병들까지 전부 가해자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다. 안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장난다.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든 집단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겠지만, 그 전에 그 들에 대한 일종의 생각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 책에서 지적하는 그 징병제 병사들에 대한 보상이 여성이라는 부분 역시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다. 그러나 그 것 역시 100프로 병사들의 탓이 아니라고 난 생각하지만, 위험한 발언일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강.간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말은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모독이 될 수도 있다고 난 본다.

김00

1부 사랑과 섹.스라는 대주제의 3번 다이어트와 섹.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저는 이 주제의 첫 문단, 특히 마지막 '사회가 뚱뚱한 여성을 얼마나 적대시하고 함부로 대하는지 느꼈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한 미국의 유튜버가 날씬하고 섹시한, 그러니깐 누가 봐도 정말 매력적인 여성을 섭외해서 한 가지 사회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내용은 뚱뚱한 특수 분장을 하고 소개팅앱을 통해 남성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남성들이 그녀를 거부하였으며, 몇몇은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를 통해 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박00

우리가 사용하는 '비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언어로 인해 장애인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사실, 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언어를 알고는 분노했다. 하지만 내가 막상 '차별받는 대상'에서 벗어나니 그것이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더라. 나에게 살짝 놀랐다. 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아픔에 대해 공감해왔다. 그런 내가, 이 대목에선 되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굴어 나 조차도 당황스러웠다. 이 부분이 '약자'의 아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인상 깊었다.

종합

'여성주의'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데에 조금 의견이 더 모였다. 물론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한 다섯명 전부가 이번에는 인상깊은 부분이 갈렸는데, 이 것은 여성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산적해있는지, 그 깊은 이면에는 어떤 사상이 있는지를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 자체가 자유롭게 제시되어서, 건전하게 이야기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다. 이런 논란이 보다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되고, 차별이 없어지면 좋겠다.

★ 지금까지의 북클럽 소감★

유00

북클럽을 하기 전에 나는 페미니즘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북클럽 도서들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페미니즘을 몰랐기에 할 수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평등이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안건들이 열거설기 얹혀있는데, 나 혼자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관점들도 있어서 이런 방면까지 고려하는구나, 했다. 비슷한 얘기로, 북클럽 일원들의 다른 의견을 듣는 건 내 좁디 좁은 시야를 넓히는 데 많은 자극이 되었다.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 못해서 그리 깊이 있는 얘기를 못했던 것 같다. 그게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한 학기동안 먹고 재밌게 떠들며 정말 즐거웠다.

박00 : 굉장히 재미있었으며, 심리학과랑 같이 하다보니 심리학에 대해서 배운 느낌이 들었다. 페미니즘과 심리학과 연관되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의견이 일치하는게 있는데, 일반적이니 좀 객관화볼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김00 : 남녀차별을 딱히 느껴본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책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보다보니, 이런 차별에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책에서 본 것의 느낌이 신선하고 새로웠다. 창녀와 창남이란 표현도 그렇고 이갈리아의 딸에서 기분이 이상해지기도 했다.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자리인 거 같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여자가 더 많아서 남성 쪽의 의견을 듣지 못 해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남성 쪽이 소수기 때문에 말하지 못 했던 것에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신선했다.

김00 : 이전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이 긍정과 부정이 무게 추처럼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한 쪽으로 치우쳐졌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중심을 찾은 것 같다.

김00 : 매우 유익했으며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작성자 대표의 소감이 어느 정도 최종 결론에 반영되어있기에 여기서도 짧게 마무리 한다.

(사진)

종합 맺음말.

우리들은 오랫동안 찾고 생각해보았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페미니즘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남과 여가 사회적으로 바뀐다면 어땠을지도 같이 생각해보았다. 미러링을 한다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았으며, 페미니즘이 아닌 인간의 조롱이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고, 페미니즘의 단어를 다시 알아보기도 했으며, 여성형 콤플렉스란건 왜 생겼는지도 고민해보았다. 페미니즘이란 이외에도 다양하고 끝없는 주제를 지닌 학문이다. 우리가 본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어떻게 봐야할지도 모를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다. 북클럽이라는 짧은 모임을 위해 각자가 준비해야할 노력과 고생도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우리는 보다 생각이 넓어질 수 있었다. 많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로 북클럽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017 년 5 월 30일

참가자대표 : 김00